

화요일



김명화
교육학 박사·작가

점등 같은 무더위에 발작물이 고개를 숙였다. 고개 땀군 발작물을 보니 대한민국의 단면을 보는 것 같다. 더위에 지친 콩잎, 토란잎, 해바라기를 보자니 현재 우리사회의 삶이 현실로 닥쳐 오고 있는 것 같다. 지치고 힘든 여름날이다.

극심한 갈등 겪는 대한민국

무더위에 계곡을 찾아 지인과 직장생활에서 분노조절을 못하는 상사, 감정을 먼저 드러내는 부하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무조건 자신의 생각이 맞다 주장하는 불통의 직원의 대화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막막하다.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불통의 직원으로 인해 전체 직원이 부서를 이동을 하고 싶어 하며, 불통의 상대로 인해 모든 직원이 동시에 사표를 들고와 대표가 수습하느라 힘들었다는 조직도 있다. 갈등, 혐오로 세대 간에 나타나는 이질감으로 우리사회는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광고 총연합회가 올해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 주제는 '소통과 참여로 함께 하

우리사회는 사춘기를 앓고 있다

는 사회갈등 극복 제안' 주제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국민 참여 캠페인 활동을 위함이다. 이러한 주제만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초감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 사회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이념에 대한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초감등 사회의 단면을 두고 고려대학교 허태균 교수는 '어쩌다 한국인'의 책을 통해 우리 사회는 사춘기를 겪고 있다고 한다. 한 세대를 500년으로 봤을 때 고려, 조선왕조 500년 정도 유지되었다. 1950년 근대부터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70년 정도다. 500년으로 나누어 본다면 우리사회는 사춘기다.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보면 사춘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에릭슨에 의하면 12세부터 18세까지 해당하는 청소년기는 정체감의 혼미 시기다. 이 시기에는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고 현재 자신의 존재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검색어 1위는 '나'라는 단어가였다.

코로나19와 언제 새로운 불안이 닥칠지 모르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 이에 실존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팬데믹 시대의 현대인은 내 안의 나, 자기정체성을 찾고 싶어하는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성격검사다. 데이터를 통해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객관적으로 알고 싶어하며 미래에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답을 찾아가려고 노력한다.

대한민국은 전쟁을 겪고 급성장한 나라다. 그런데 갈등, 자살률은 높으며 행복지수는 낮다. 올해 세계 행복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 행복지수는 59위다. 국가 경쟁력은 10위안에 드는 나라인데 행복지수가 낮다는 것은 삶의 질보다는 경제 성장에만 머물러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행복지수 질문 유형을 보면, 기대수명, 사회복지, 자유, 부정부패, 관용, 미래에 대한 불안 등 6개 항목이다.

혼란 이후 자아정체감 찾아

우리 사회 경제성장을 통해 MZ세대는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풍족하게 자라왔다. 그러다 보니 삶의 기준점이 높아졌다. 다양한 문화생활, 워라벨을 지향하는 MZ세대는 이제는 자신의 부모와는 다른 삶의 패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현실적인 삶에서 깨우쳐버린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대학, 직장생활, 결혼,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삶의 기준이었는데 현실은 노력만 해서 얻어지는 사회가 아닌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사춘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은 젊다. 젊다는 것에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한다는 것은 혼란의 시간을 경험함으로써 자아정체감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행복하지만 불편한 사춘기를 보내는 우리 사회가 안정화된 시기로 잘 정착하길 바란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파심이 든다. 사춘기, 청년기를 잘 보내고 사춘기보다 더 무섭다는 갱년기를 잘 넘겨야 할 것인데, 걱정이 앞선다.

이봉철의 일찌골프 <60>



한국골프학회부회장
체육학박사

골프의 매력 중 하나는 긴장 후의 미소가 달콤한 게임이라는 것이다. 골프는 미소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 소리 없는 웃음인 미소가 뇌를 기분 좋게 자극한다고 한다. 골프는 성격에 두드러지는 기질이 강한 운동이다. 바로 강철멘탈이다. 강한 근력과 유연성, 순발력, 조정력, 균형성 등이 요구되면서 자신감과 용기,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멘탈 운동이다. 박세리 키즈라고 불리는 여성골퍼들이 유독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멘탈경쟁의 환경이 더욱 강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선수들은 라운드 무한한 경쟁이면에 웃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강철멘탈은 무한경쟁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나를 끝까지 지켜 줄 단 하나의 힘이기 때문이다. 비기너들이 라운드하면서 징징거리거나 짜증을 내면 라운드 분위기를 가라앉게 만들지만 미소짓게 되면 라운드는 밝아지고 친절해지면서

이기는 라운드, 스마일 골퍼

즐거워진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과 행동을 전염시켜 상호 유대감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라운드 중 마음 먹은대로 되지 않으면 조금씩 지면서 화가 난다. 긴장하고 불만에 가득 차 있으면 동반자 역시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목표방향으로 불이 가지 않는 경우와 목표방향으로 불을 보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경우는 더 그렇다. 그린에서도 라인을 보고 읽는 데로 불을 퍼팅하였는데 그대로 잘 갔지만 홀인이 안 되는 경우이다. 스트로크는 잘 했지만 라인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더욱 약이 오른다. 첫 홀에서 잘 안풀리면 홀을 더 할수록 약전고투한다. 한 홀 한 홀 라운드를 하면서 계속해서 약이 오른다. 성이 차지 않는다. 리듬은 흐트러지고 최악의 스코어로 라운드를 망치고 만다.

골프란 최악의 적인 자기 자신과 함께 플레이 하는 게임이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골퍼게임을 이기지 못한다. 마음을 추스려야 일관된 스윙으로 실수를 줄일 수 있다. 혹 실수를 하였다하여 망연자실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재충전을 해야 한다. 유리멘탈로서는 이겨낼 수가 없다.

라운드가 잘 안풀릴수록 웃어야 좋은 샷을 할

수 있다. 힘든 게임을 하지 않으려면 긴장을 풀고 웃어야 한다. 웃음은 기적을 가져다 주며 건강에도 좋다. 웃어야 몸의 근육이 풀리면서 자연스러운 스윙을 할 수 있다. 사람은 긴장을 하면 이를 무는 습관이 있다. 긴장상태로 접어드는 것이다. 치아를 물면 몸의 근육이 굳어져 전체적인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긴장상태를 풀기 위해 팔프 스윙시에 사탕을 물고 스윙을 하기도 하고 입을 벌리고 스윙하는 골퍼들도 있다. 긴장상태에서의 스윙은 제스윙을 할 수가 없다.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도 웃어야 한다. 긍정적으로 웃어야 좋은 스윙을 할 수 있다. 많이 웃을수록 몸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어떠한지 자문자답을 해 본다. 파트너와 함께 웃어라. 나의 실수를 바라는 상대에게도 변화를 주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라운드가 된다.

자신의 내면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몸과 마음의 흔들림을 치유하는 효과를 주는 웃음은 골프 라운드중 가장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산물이다. 웃음은 쾌적한 정신활동에 수반되는 감정 반응이다. 골프에서 편안한 마음은 골프를 즐길 수 있게 한다. 즐기는 골퍼는 바로 이기는 골퍼가 된다. <골>

여름 휴가, '농촌체험 팜스테이'로 떠나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여름휴가는 산과 들, 자연에 몸과 마음을 맡길 수 있는 '농촌 힐링여행'으로 계획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농촌체험 팜스테이' 말이다. 팜스테이는 농장(farm)에 머무는(stay) 여행이다. 농가에 숙식하며 농산물을 수확하고 시골 문화도 체험하는 일종의 '농촌체험 여행 프로그램'을 말한다. 팜스테이 사업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사는 '도농상생'을 위한 취지에서 1999년 농협에서 처음 시

작됐다. 현재 전국 방방곡곡 300여 개의 팜스테이 마을이 운영 중이다. 특히 각 마을마다 지역 특색에 맞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족단위 여행객들에게 안성맞춤이다.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올해, 여름휴가는 '농촌체험 팜스테이'로 떠나자. 무더위는 물론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찌든 몸과 마음의 때를 말끔히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Jeonnam Daily, including phone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editorial, circulation, and advertising.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설

경제부시장, 기재부 출신일 필요없지만

광주시 신임 문화경제부시장에 김광진(41) 전 국회의원(비례)이 임명된 것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문화경제부시장의 행정 경험·문화 관련 경력이 없는데다 기획재정부 출신이 아니어서 국비예산 확보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 김 시장은 인선 당시 "의원 시절 국방위원회에 4년 있으면서 군사, 국방 문제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며 "광주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문재인 정부 초대 청년비서관 경험으로 광주를 활력과 매력에 넘치는 도시로 만들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화경제부시장은 문화와 경제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있어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선에서 심각한 호남 홀대를 겪었다. 지역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국비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호남은 정치·경제적으로 엄청난 소외를 겪을 수 있다.

민선 7기인 지난 2019년 10월 당시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이 기재부에서 부임했을

때 이런 말이 있었다. "문화와 경제 분야에서 모두 경험이 많고, 국비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하며, 광주에 대한 애정이 많아야 한다는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자격 조건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를 맞은 지금 국비 예산에 대한 절박함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김 문화경제부시장이 광주에 대한 애정은 많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문화와 경제 분야에서 경험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식 사회와 시민사회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국민의힘 집권으로 힘을 얻고 있는 대구시는 경제부시장에 이종화 전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을 임명했다. 여론의 든든한 배후가 있는 대구도 이 같이 공을 들인 것이다. 이 경제부시장은 대기업 유치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국비 건설 추진 등을 다짐했다. 김 문화경제부시장이 행정 경험이 없고 기재부 출신이 아닌 점을 고려해 김 시장은 재정경제자문에 안도걸 전 기재부 2차관을 비상임으로 임명했다. 안 전 차관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줄지 지켜볼 일이다.

SRF 분쟁, 지역 갈등해결 답안돼야

광주·전남의 해묵은 갈등 요소였던 빛가람 혁신도시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가 가동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단으로 오랜 기간 지속돼온 분쟁은 일단락 됐지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 갈등 중재를 위한 지역사회의 리더십 재정립 등은 서둘러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게됐다.

대법원1부는 지난달 30일 나주시가 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상고인인 나주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해당해 이유없음이 명백하고, 제5조(판결의 특례)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난방공사가 나주시에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관련 개시 신고를 신청했지만 나주시가 이를 불허해 난방공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잇따라 패한 나주시가 상고해 진행했다. 법원이 최종심

에서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나주시와 난방공사 모두 발전소 정상가동 수순에 들어가는 등 5년 가까이 이어진 양측의 분쟁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SRF 갈등'이 남긴 숙제는 적지 않다. 당장 수백억대 손배소는 발등의 불이다. 2017년 이후 5년여간 시설 가동을 못했고, 연간손실액 200억원으로 기준했을 때 손배소 금액은 1,000억원대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역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리더십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린다.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 난방공사 등이 발전소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거버넌스가 2019년부터 1년여 간 해결안을 남긴 채 활동을 마무리한 점 등을 꼼꼼히 되새겨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분쟁은 끝났지만 시민단체의 반발 가능성 등 SRF 갈등은 아직 진행형이다. 이해 당사자는 물론 정부와 시민사회 등이 모두 나서 차체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SRF 분쟁이 지역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답안이 돼야 한다.

쌀값 안정화, 정부 역할 절실하다

기지수첩



오선우

정치부 기자

역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4만5,534원으로, 지난해 수확기(5만3,534원)에 비해 14.9% 하락했다.

그러나 폭락한 쌀값에도 판매량은 여전히 저조하며 창고에 쌓이는 쌀도 늘어만 가면서 정부는 지난 1일 2021년산 쌀 10만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올 들어 세 번째 시장격리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초과 생산된 쌀 27만톤 전량을 올 2월 14만4,000톤, 5월 12만6,000톤 등 두 차례에 걸쳐 시장격리하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순까지 세부 매입계획을 마련해 공고한 뒤 추석(9월10일)용 조생종 벼 출하가 예상되는 8월 말까지 시장격리국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가뭄의 단비 같은 시장격리 소식에도 농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두 차례 시장격리에서 공공비축미 가격이 아닌 최저입찰가 입찰 방식으로 매입했다가 쌀값 폭락을 오히려 가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지난 실패를 거울 삼아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시장격리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올해 수확기 전 쌀값을 반드시 안정시켜야 한다.

앞으로 지속적인 쌀값 안정을 위해 가격 하락이나 생산과잉 시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물가가 연이어 치솟고 있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음에도, 5월 발표되는 6월 물가 상승률은 6%대를 넘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6%를 넘는 것은 23년 7개월 전인 1998년 11월(6.8%)이 마지막이다.

문제는 6월이 고점인 아니라는 것이다. 전기·가스요금인 인상되고 9월 추석 성수품 수요가 몰리는 7~8월에는 상승률이 더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전례 없는 고물가 상황에서도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는 것이 있다. 바로 쌀값이다.

국내산지 쌀 판매가격은 지난해 수확기인 10월 이후 계속해서 떨어져 45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지난 6월15일 기준 전남지